

K-벼재배기술, 아프리카 식량안보 견인

농촌진흥청, 10년간 15개국서 벼품종 71종 개발·육종가 44명 양성... '쌀 자급자족' 기반 마련

농촌진흥청이 추진한 '아프리카 벼 개발 파트너십' 사업이 지난 10년간 아프리카의 쌀 생산성 향상과 식량안보 강화를 기여하며 K-농업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AFACI)와 아프리카벼연구소(AfricaRice)가 공동 추진한 '아프리카 벼개발 파트너십' 1단계 사업(2016~2025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15개국에서 71개 벼 품종이 개발·등록됐고, 23개국에서 벼 육종가 44명이 양성됐다. 이를 통해 현지 국가들의 쌀 자급자족 기반 조성 및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프리카는 쌀이 주요 식량작물이지만 품종 개발과 재배기술, 농업 인프라 부족으로 벼 생산성이 헥타르(ha)당 2.4톤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아시아 평균 생산성인 5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면 인구 증가와 도시화로 쌀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 상당수 국가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한국의 통일형 벼 품종과 약배양 기술을 활용해 현지 환경에 적합한 다수확 품종 개발에 나섰다. 그 결과 개발된 품종의 수량성은 대부분 ha당 6.6~6.8톤 수준으로 기존 품종보다 생산성이 크게 향상됐다.

대표적으로 가봉에서는 '셰이(CHEYI)', '올보마(MBOMA)', '무카파시(MOUKAFACI)-1' 등 3개 품종이

개발돼 국가 등록 품종으로 지정됐다. 세네갈에서도 '이스리(ISRI) 6·7' 등 6개 품종이 개발·보급되며 높은 생산성과 품질로 현지 농가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인제 양성도 성과를 거뒀다. 농촌진흥청은 회원국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4개월간 집중 교육을 실시해 벼 육종가 44명을 배출했다. 이를 통해 각국이 자체적으로 품종 개발 역량을 갖추고 재배기술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2023년부터 '아프리카 K-리시벨트'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세네갈, 가나, 케냐 등 거점 국가에 우량종자 생산단지를 조

성해 다수확 벼 종자를 아프리카 전역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벼 종자 생산량은 2023년 2321톤에서 올해 6365톤까지 늘었으며, 2027년부터는 연간 1만 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품종 개발에 초점을 맞춘 '아프리카 벼개발 파트너십' 2단계 사업도 추진한다.

최광호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장은 "아프리카 벼개발 파트너십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쌀 자급자족과 식량안보 실현에 중요한 기반을 마련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K-벼재배기술을 활용해 개발도상국의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농업기술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국민연금공단, 혁신도시 상생 대상

전국 이전 공공기관 중 지역발전 기여도 1위

국민연금공단이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균형발전 노력을 인정받아 '2026 혁신도시 상생 대상'을 수상했다.

국민연금공단은 혁신도시정책연구원과 대한민국의학전문대학협회가 공동 주관한 '2026 혁신도시 상생 평가'에서 이전 공공기관 부문 최고상인 '혁신도시 상생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95곳과 배후 광역·기초지방정부 20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는 각종 통계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성·정량 분석, 전문가 평가 등을 종합한 다차원 혼합평가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성장지수(200점), 활력지수(300점), 협력지수(500점)를 기준으로 지역발전 기여도를 측정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중소기업 지원, 지역인재 육성, 사회공헌활동 등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역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며 혁신도시 정착과 지역발전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온 점이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오상근 기자

NH농협은행, 우수 농식품 기업 육성 본격화

익산 다송리사람들 '희망농업 우리농가 동행기업' 현판식 가져



NH농협은행은 지난 10일 익산시 합영읍에 위치한 영농조합법인 다송리사람들(브랜드 고스락)에서 '2026년 희망농업 우리농가 동행기업' 선정 기념 현판식을 개최했다.

NH농협은행이 국산 농산물을 활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우수 농식품 기업 육성에 나서며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10일 익산시 합영읍에 위치한 영농조합법인 다송리사람들(브랜드 고스락)에서 '2026년 희망농업 우리농가 동행기업' 선정 기념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희망농업 우리농가 동행기업'은 NH농협은행이 전국 단위로 추진하는 상생 금융 프로그램으로,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

고 농가와의 상생 모델을 구축한 우수 농식품 기업을 선정해 금융·비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전북지역 선정 기업인 다송리사람들은 100% 국산 유기농 원료를 사용해 전품 장류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3만 평 규모의 향아리 정원을 활용해 제조와 관광을 접목한 6차산업 선도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용 익산시 부시장과 NH농협은행 이영우 부행장, 장길환 전북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농식품 산업 발전과 상생 협력 확대를 위한 의지를 공유했다.

한편 이날 현판식과 함께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익산시 행복나눔마켓에 우리 농산물 물품을 기부하는 나눔 행사도 진행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 인공지능·데이터 공동연구회 세미나 성료

(재)전북테크노파크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에 나섰다.

전북테크노파크 부설 전북데이터융합센터는 11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76차 전북 인공지능·데이터 공동연구회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AI와 데이터 활용 활성화, 지역 디지털 전환 촉진,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에서는 전북 디지털전환 정보교류 플랫폼인 '공모모아'와 '기업모아' 서비스 소개를 비롯해 전북정보보호지원센터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연계 지원사업 안내, 가맹정보 활용 및 합성데이터 생성 기술, AI 에이전트 개발 동향 등 다양한 주제의 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2026년 전북 가맹정보 활용 지원센터 지원사업이 소개되며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발표에서는 가맹정보 처리와 합성데이터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요건과 기술적 절차, 활용 사례 등이 공유됐으며, 행사장 내 홍보 부스에서는 최신 데이터 활용 기술과 가맹정보 활용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개별 상담도 함께 이뤄졌다.

또한 사이버 침해사고 현황과 전망 등 국내 정보보호 동향이 소개됐으며, 전북지역 산업 현황에 따른 정보보호 지원센터의 역할과 지원사업도 공유됐다.

/오상근 기자

전북바이오진흥원, 친환경 포장·푸드테크 산업 육성 앞장

월드푸드테크서 친환경식품포장 세션 개최·전북 푸드테크 홍보관 운영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친환경 식품포장 산업과 푸드테크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의 푸드테크 행사에 참가해 산업 활성화에 나섰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9일부터 오는 12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월드푸드테크 2026 컨퍼런스(World FoodTech 2026 ConfEx)'에서 친환경식품포장 세션을 개최하고 전북 푸드테크 홍보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월드푸드테크협의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서울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전시와 컨퍼런스, 시상 프로그램이 결합된 통합 플랫폼 형태로 진행됐다. 바이오진흥원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친환경식품포장 세션을 마련해 관련 산업의 저변 확대와 전북 중심의 산업 전환 기반 조성에 힘을 보탰다.

특히 익산시의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도 친환경 식품포장 산업 육성과 관련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션 개최에 협력하며 지속가능한 식품산업 생태계 조성에 뜻을 함께했다.

행사 기간 운영된 전북 푸드테크 홍보관에서는 전북자치도의 푸드테크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월드푸드테크 2026 컨퍼런스'에서 친환경식품포장 세션을 개최하고 전북 푸드테크 홍보관을 운영했다.

정책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패키징센터의 친환경 포장 기술 및 제품이 소개됐다.

지난 10일 열린 친환경식품포장 세션에서는 바이오진흥원 장한수 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ETI 포장재 및 포

장폐기물 규정 대응 방안 △국내외 친환경 식품포장재 기술개발 동향 △식품기업의 친환경 포장 적용 사례와 생분해 소재 상용화 전략 등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가 이어졌다.

/오상근 기자

전북중기청, 바이오플렉스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간담회 가져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1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바이오플렉스(β)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들의 경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직접 파악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사업화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바이오플렉스 β 입주기업 대표와 바이오식품산업화센터 입주기업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



며, 창업보육센터 운영 성과 공유와 기업 애로사항 청취, 성장 지원방안 논의 등이 진행됐다.

기업들은 사업화 과정에서 겪고 있는 판로 개척, 자금 확보, 인력 채용, 시설 활용 등의 어려움을 공유했으며,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연계와 상담·멘토링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오상근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